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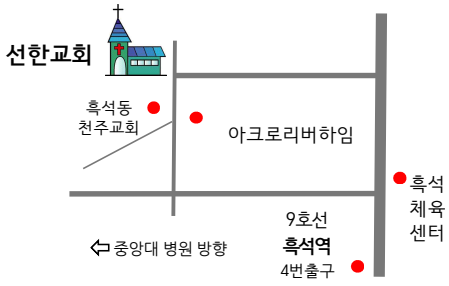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6장 (통일찬송가 36장)			
교 독 문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찬 양 과 경 배	338장 (통일찬송가 364장)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5장 7~14절		삼상 22:1~5	
설 교	마지막 권면과 인사 (임춘배 목사)		광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김대희 장로 김혜선 권사 가정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최성규 청년부 회장	
찬	양	청년부 찬양팀		
기	도	조예은 청년		
영	상	청년부 활동 영상		
성	경	봉	독	하박국 3장 2절(정주영 청년 성경 봉독)
설	교	Do it again (김혜세 목사)		
헌	금	송	청년부 일동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악인들에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 109:1~31)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배안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여호수아회입니다.
4) 주차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강사: 김혜세 목사(시냇가푸른청년교회 담당 목사)

3. 셀가족모임

다음 주일(29일) 오후 예배는 셀가족모임으로 진행합니다.

4. 노방전도

28일(토)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 담당: 흑석1,2/서초

5. 야외예배

10월 6일(주일) 전교인 야외예배
* 시간: 오전 11시
* 장소: 매현시민의숲(양재 시민의 숲)
* 주차: 양재 매현 윤봉길 기념관
* 경품 협찬을 받습니다(문의: 백상열 집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	--

찬송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통482)

본문 : 마가복음 1장 32~35절

말씀 :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우선성'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35절)

어떤 집사님이 열 살 된 아들과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천장을 보니 '기도'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왜 썼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제가 기도를 하고 싶는데 자꾸 까먹게 돼요. 밤에 자기 전이라도 누우면 천장에 '기도' 글씨가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려고요."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또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몸소 실천하는 아이입니다.

'우선순위'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기도의 우선성입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길을 잃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정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시간과 열정을 쓰는데 허전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우리는 기도의 우선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서 주님을 제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요 15:5)

둘째,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우선성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태도입니다. 교만이 기도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분주함'이 기도의 우선성을 방해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게으름과 나태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바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의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왕성하게 거침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

마지막 권면과 인사 (벧전 5:7~14)

서 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 마지막 권면

- (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7절)
- (2) 근신하라 깨어서(8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9절)
- (3)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10절)
- (4)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본 론 있을지어다'(14절)

2. 교훈

- (1)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있는가?
- (2) 지금 깨어서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있는가?
- (3) 서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돌아보는가?

결 론

어떤 마귀의 대적에도 넘어지지 않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조예은 청년	
주 방 봉 사	여호수아회	루디아회

매일 Q.T.		예배를 섬기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날짜 : 9월 23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본문	느헤미야 11:10~21		
말씀요약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야, 아맛새, 삽디엘 등 1,192명이 남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삽브대, 요사밧, 맛다냐, 압다 등 284명, 성 문지기는 172명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묵상질문 1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 명단 11:1014 여러 대를 거쳐 이어진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묵상질문 2	예루살렘에 남은 레위인과 봉사자들 11:15~21 예루살렘에 남은 레위인은 어떤 일들을 했나요?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11장 8절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에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누군가는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몇몇 뛰어난 지도자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헌신된 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희생은 개인에게 손해일 수 있지만, 그러한 헌신은 '공동체'라는 더 큰 가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마다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죄로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목표는 같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새 12)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우리 민족을 오래 지배해 온 무속(巫俗), 즉 샤머니즘의 근본정신은 자연의 지배자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 그 존재에게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신령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이를 가리켜 ‘신령한 존재가 보기에 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애를 쓴다는 의미로 ‘치성(致誠)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치성을 드리기 위해 바위 앞에서 일천 번 절을 하거나,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빌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신령한 존재를 부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판 곧 신접 행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접하는 행위로 굿을 하던 무당에게 신이 잘 내리지 않으면, 무당은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굿을 부탁한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고는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니 돈을 더 놓거나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속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이는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열방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느헤미야 12:22~30
묵상포인트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거룩함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삶을 점검해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관찰과묵상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은 어디에 기록되었나요?(22~23절)
적용하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모두 기록된다면, 어떤 점을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작은 죄도 경계하고, 진리를 훼손하려는 사탄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봉헌식 축제	날짜 : 9월 27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본문	느헤미야 12:31~47		
말씀요약	느헤미야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합니다. 또한 감사 찬송 하는 무리를 둘로 나눠 각각 성벽 위 오른쪽과 왼쪽으로 행진하게 하는데, 제사장 몇 명은 나팔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성전 섬기는 자들은 쓸 몫을 받습니다.		
목상질문 1	두 무리로 나뉘어 성벽을 오름 12:31~42 두 무리로 나뉘어 성벽을 둘 때 어떤 이들이 앞장섰나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가 기쁨의 축제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봉헌식 축제와 큰 기쁨 12:43~47 레위인과 백성은 예배를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교회 공동체가 활기 있고 기쁨이 넘치도록 내가 조력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느헤미야 12장 40, 43절 성벽 봉헌식을 위해 레위 사람들로 성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고백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받은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감사의 예물로 표현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쓰이게 하소서.		

매일 Q.T.		예배로 하나 되어 지경을 확장하는 공동체	날짜 : 9월 24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본문	느헤미야 11:22~36		
말씀요약	아삽 자손 중 웃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립니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들을 제외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유다 여러 마을과 들에 흩어져 거주합니다. 레위 사람 일부는 베냐민 자손과 함께 지냅니다.		
목상질문 1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부가적 설명 11:22~24 귀환한 백성이 자율적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 목록 11:25~36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가 포로기 전과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의 행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절목상	느헤미야 11장 22절 무너진 신앙과 삶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삽의 후손인 웃시가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장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기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감독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사는 이유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저와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매일 Q.T.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중심인물들	날짜 : 9월 25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끄리어		
본문	느헤미야 12:1~21		
말씀요약	스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제사장 명단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 형제의 지도자들입니다. 레위 사람 중 맛다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도 소개됩니다.		
목상질문 1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명단 12:1~11 포로기에도 하나님이 대제사장 계보를 보호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 내가 하나님 시선으로 살필 부분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요야김 시대 제사장 족장들 명단 12:12~21 귀환한 제사장들과 명단을 다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 내가 철저히 점검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12장 1절 인구 재정착 작업을 마친 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계를 조사합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회복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섬김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의 수고의 자리에 함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누구보다 수고하려는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곳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소서.		

매일 Q.T.		봉헌식을 위한 준비, 정결한 몸과 마음	날짜 : 9월 26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본문	느헤미야 12:22~30		
말씀요약	엘리아십 때부터 앗두아 때의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이 다리오왕 때 기록되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을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되자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목상질문 1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들 12:22~26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의 출처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과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이들은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성벽 봉헌식 준비 12:27~30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왜 레위인을 불러 모았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위해 꼭 함께 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12장 24절 다윗은 성전 예배를 위해 레위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대상 25:1~2). 그 제도를 이어받아 레위 족속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헌신, 바른 지도자 등은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이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기록되는지 고민하는 일은 영적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선한 영향을 주는 신앙 열매를 남깁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보잘것없는 제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이 하나님께 드리지게 하시고, 제가 밟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도우소서.		